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

WEF Weekly Stories

2025년 3월 18일, WEF 4차 산업혁명센터, 경기도 대한민국

센터 웹사이트: Koreago.net

*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Forum Stories 발간일자: '25년 3월 14일)

1. 지속 가능한 항공의 미래는?



항공업계가 지속 가능성과 성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올해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포럼은 첫 번째 '항공의 날(Aviation Day)'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자리에 모인 업계의 주요 관계자들은 지정학적 격변과 점점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탈탄소 노력 속 항공 업계의 미래를 논의했다.

- 세계경제포럼은 '[2025 글로벌 항공 지속 가능성 전망\(Global Aviation Sustainability Outlook 2025\)](#)' 보고서를 통해 항공 업계의 탈탄소 노력에 영향을 미칠 위협과 기회를 분석했다. 보고

서에 따르면 항공업계 CEO들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공급 및 비용 문제, 지정학적 긴장,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글로벌 항공 업계는 2030년까지 제트 연료의 탄소 집약도 5%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 등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올해 각국 정부와 업계의 조치들이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핵심 포인트:

- SAF 투자 격차 해소: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의 글로벌 수요는 연간 1,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50년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 향후 25년 동안 항공 교통량이 현재보다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항공 업계의 탈탄소 달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의 도입과 탄소 중립 대안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투자, 혁신,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민간 부문이 항공업계의 탈탄소를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More

2. 기업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우선순위들



오늘날 기업들은 인공지능(AI) 도입, 직원 역량 강화, 지속 가능성 등 광범위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과제들을 다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사람 중심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 직장 내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경우 전 세계적으로 최대 11.7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원들의 번아웃과 만성 질병이 증가하고 업무 방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투자](#)로 장기적인 비즈니스의 성공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매주 하루는 기술 없이 지내보면 어떨까?**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Jonathan Haidt)’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주는 [‘디지털 안식일\(Digital Sabbath\)’](#)을 제안한다.
- **여성 창업가들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데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영국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체리 블레어(Cherie Blair)’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핵심 포인트:

- **경제적 자립 격차의 해소:**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는 ‘[경제적 자립 기준\(Empowerment Line\)](#)’ 개념을 소개하고 기업이 경제적 자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자립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여성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AI 레드라인:** [인공지능\(AI\)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미래 AI 위원회(Global Future Council on the Future of AI)’는 사용자의 AI 활용 범위와 AI 행동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행동에 관한 가이드라인(Behavioural Limits)’의 설정을 제안했다.

More

3. 지경학적 불안정성과 무역 갈등의 최신 동향



트럼프 정부의 관세의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급격히 하락](#)했다. [관세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조되는 국제 무역 생태계의 긴장감이 전 세계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지형도의 변화에 발맞춰 사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신흥 도시들은 기반시설 투자, 네트워크 강화, 기후 복원력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며 주요 상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 EU와 인도가 새로운 시장 개척, 혁신 촉진, 글로벌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역사적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EU와 인도 간 무역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중산층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버드의 경제학자 ‘다니 로드리크(Dani Rodrik)’은 올해 글로벌 리더들이 ‘중산층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포인트:

- 각국이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분열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른 비용을 알아본다.
- 서아프리카 국가 경제 공동체(ECOWAS)는 단일 통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Eco\)’라 불리는 이 화폐가 도입되면](#) 시장 통합이 촉진되고, 환전 비용이 사라지며, 녹색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Net Zero)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동에 디지털 결제 열풍이 불고 있다. 중동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 방식이 변화하고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

More

4차산업혁명센터 홈페이지



Forum Stories newsletter

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

Subscribe today →